



FAO, 기상 악화와 전쟁 영향으로 7월 세계 식량 가격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World food prices hit 3-year high in July as weather and war weigh, FAO says)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금요일 기상 여건 악화와 걸프 및 흑해 지역의 전쟁 격화가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7월 세계 식량가격이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주요 식품 원자재 가격의 월별 변화를 추적하는 FAO 식량가격지수는 7월 평균 131.1포인트로, 6월의 130.3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기상 악화로 옥수수 생산량 35% 감소 전망

(France forecasts 35% decline for weather-hit maize crop)

프랑스 농업부는 금요일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식용 옥수수 생산량이 9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소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업부는 이번에 처음 발표한 2026년 옥수수 생산 전망에서 평균 단수를 헥타르당 7.03톤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처: Thomson Reuters